내 웃음이 하나님의 진노 살 때

(이사야 22:1~25)

1.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네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인고
2.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3.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4.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내 웃음이 하나님의 진노 살 때>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내 웃음이 하나님의 진노 살 때'
열 나라의 멸망에 대한 예언 중 두로와 시돈만 남겨둔 상황에서, 불쑥 남 왕국 유다를 향한 멸망 예언이 나타납니다. 남 왕국 유다의 멸망 예언은 앞서 1~5장에서 자세하게 기록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남 왕국 유다의 멸망 예언이 등장한 데에는 분명한 주제와 의도가 있습니다.

내 웃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이나 연임에 성공하고 16년을 통치한 최장수 독일 총리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해봅니다. 바로 독일 통일의 아버지라 불리는 헬무트 콜(Helmut Josef Michael Kohl) 총리 이야기입니다. 임기 말년에는 불법 정치자금에 연루되어서 스캔들이 있었습니다만, 독일 역사 속에서 찬란한 족적을 남기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말이 유창하지는 않았습니다. 덩치가 아주 컸는데 그 때문인지 발음도 언제나 둔해보였습니다. 실제로 둔했던 것은 아니지만 느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실수만 눈에 띄어도 국민들로부터 지나칠 정도의 비아냥거림의 대상이 되고는 했답니다.
헬무트 자신도 이러한 분위기를 잘 알고 있었기에 오히려 여유 있게 받아치면서 "나 하나가 웃음거리가 되어서 국민들이 즐거울 수 있다면 얼마든지 바보가 되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

니다. 그의 넉넉한 마음으로 포용력을 느끼게 하는 발언이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에 오기를 부리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선민의 나라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웃음거리로 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비꼬거나 비아냥댄다는 의미가 아니라 선민들이 진심으로 즐거워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선민이라면 이에 합당한 응답을 보여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때에 첫 번째 응답의 내용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일 과제 등의 어떤 대상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을 더 먼저 더 크게 의식해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에 더해 응답의 두 번째 요소가 나옵니다. 반드시 하나님만이 우리의 웃음거리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하하거나 비아냥거림으로써의 웃음거리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의 이유로써 웃음거리가 되셔야합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응답입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하기가 사뭇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함께 함에는 세상적인 조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학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비용이나 노력이나 혹은 수련이 요구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염없이 거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기 이전의 삶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결심하셨기에,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결심이 필요한데, 이사야는 이것을 선민들 앞에 뚜렷하게 드러내어 깨닫게 하고자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고 우선시함이 의식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끼는 나를 번제단에서 끊임없이 죽여야만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에 더해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웃음거리가 되셔야 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를 웃게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주로써 옆에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웃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예언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BC.701년에 히스기야 왕은 두 차례에 걸친 앗수르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침공 때에는 애굽에 손을 벌려서 반 앗수르 동맹에 가담함으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앗수르의 산헤립 왕에게 꼼짝없이 당하고 금과 은을 조공으로 받치겠다는 약속을 하고서야 멸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침공 때에는 마음을 고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산헤립이 보낸 조롱 섞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범처럼 느껴지던 앗수르가 하룻강아지로 여겨지게 됩니다. 반대로 하룻강아지로 체감되던 하나님을 이제는 범처럼 체감하게 되는 역전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산헤

립의 십팔만 오천 명을 멸절시키십니다. 이 사건 직후에 오늘 본문의 예언이 유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1절에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고 하였습니다.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상과 계시가 주어지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로서 선택하신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이어지는 1절 하반부에서 2절을 보면 '네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인고 /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가옥의 지붕은 슬라브식으로 되어 있어서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잔치를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 떼를 지어 지붕에 올라가서 즐거워하였습니다. 소란할 정도로 환호성을 지르고 즐거워하는데 지붕으로 올라간 이유는 뭔가를 보기 위함입니다. 관측하기 위해서입니다.

산헤립의 십팔만 오천 명의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자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것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기이한 일이었기 때문에 불쑥 성문 바깥으로 나서지는 못하고, 높은 지대에 있는 집들의 지붕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너머로 보이는 십팔만 오천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던 곳을 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산헤립과 소수의 살아남은 자들이 도망가고 줄행랑치는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절 하반절에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산헤립의 군대 십팔만 오천 명에게 칼 한 번 쓰지 않고, 활 한 번 쏘지 않았는데 자멸했습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 이 모습을 본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기적처럼 주어진 승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때에 이사야는 이 축제분위기에 휩싸인 이들에게 찬물을 확 끼얹습니다. 산헤립의 군대가 망한 것처럼 남 왕국 유다도 손 한 번 쓰지 못한 채 망하리라는 예언을 합니다. 때를 가리지 않는 이사야의 영성이 참으로 부담스러울 지경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읍을 진치고 있던 무적의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자멸해버렸습니다. 기뻐하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의 백성들에게 이제 남 왕국 유다도 산헤립처럼 망할 것이라고 하고 있으니 이사야 선지자의 성격자체가 꼬인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를 꼬이게 만든 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마음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이사야 때에 나온 단어이지만 그 실질적 의미는 출애굽 때부터 계속 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내게 주어지는 어떠한 사건이나 대상들보

다도 창조주 하나님을 더 먼저 더 크게 여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기에 이러한 나를 번제단에서 죽여야 합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주장을 굽힐 수 없었기에 백성들의 기쁨과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앗수르의 군대가 자멸함을 보고서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볼 때는 이것 또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은 적들의 멸망으로부터 생겨서는 안 되고 웃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함이 참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으로 기뻐하라는 것일까요?
이사야는 '기쁨거리'라는 측면에서 앗수르의 군대가 멸절 당한 사건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무게를 비교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는 전혀 기뻐하지 않았던 백성들이 적군이 멸절하자 온 성이 떠나가도록 크게 기뻐합니다. 이사야의 눈에는 백성들의 이러한 기뻐함이 결코 달갑지 않았습니다. 선민은 어디까지나 창조주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아야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할 때에 그 원인은 앗수르였습니다. 그런데 기뻐할 때에도 그 원인은 앗수르입니다. 이렇게 세상 것으로 두려워하거나 기뻐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자 이사야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을 가진 이사야에게 남왕국 유다의 멸망으로 예언을 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히스기야 왕 때의 산헤립 군대의 십팔만 오천 명이 멸절 당한 사건보다, 여호사밧 왕 때에 일어난 승리가 훨씬 더 마음에 와 닿습니다.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연합군을 이루어 남 유다를 침공했을 때입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적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몰려왔다고 했습니다. 이때의 여호사밧 왕과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 시대를 비교해봅니다. 히스기야는 혼자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지만, 여호사밧 왕은 온 유다 나라 전체에 금식령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백성들이 전국에서 몰려와서 성전 뜰에 모여 금식을 합니다.
앞선 설교에서 히스기야 왕의 성전 기도를 '하룻강아지 기도'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마음에서 범 같이 느꼈던 앗수르와 하룻강아지로 여겨지던 하나님이 역전현상이 일어난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범처럼 여기게 되자 이번에는 앗수르의 군대를 하룻강아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앗수르의 군대는 멸절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여호사밧 왕 때에는 이 하룻강아지 기도가 왕으로부터 온 백성들에게까지 경험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금식한 후에 적들을 향해 나아갈 때에 군대 앞에 성가대를 세웠습니다. 성가대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는 찬송을 부르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군대 앞에 성가대가 섰다’라는 것은 적들의 위협보다 하나님이 우선시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체감되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는 왕을 제외한 백성들의 마음에서는 하룻강아지 기도와 같은 역전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적들이 멸절됨을 두고 크게 소란이 일어날 정도로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 때에는 적들이 여전히 있는 가운데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되었음을 성가대가 노래로 선포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적들이 멸절 당한 것도 아니고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마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웃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호사밧의 백성들도 적들로 인해 울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모여 금식기도를 하는 중에 이러한 마음을 번제단에서 죽이게 되었고, 하나님이 적들보다 크고 우선시되심을 실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성가대를 앞세워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적으로 하여금 자멸하게 하셨습니다.

결과는 똑같은 적의 자멸이었지만 히스기와 왕 때에는 백성들의 참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같은 결과를 두고도 다른 마음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백성들은 적들의 괴멸로 인해 기뻐하였고, 여호사밧 왕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함을 기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바로 이러한 마음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앗수르가 쳐들어 왔을 때에는 앗수르를 하나님보다 크게 여겨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랬기에 애굽에 손을 벌리고 반 앗수르 동맹에 참여하여 위기를 모면하고자 했습니다. 본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스스로 방어책을 찾기 위해 부산해하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제 앗수르의 군대가 하나님에 의해서 멸절 당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앗수르가 멸망당한 것을 기쁨거리로 삼으며 웃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졌기에 남 유다 또한 앗수르의 군대처럼 망하게 되는 참담한 불행의 때를 맞이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경고입니다.

문제가 닥쳤을 때에 선민의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크게 느껴지던 문제가 하나님보다 작게 느껴지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의 백성들처럼 문제를 끌어안고 우선시하느라 염려와 두려움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설령 문제가 해결되었더라도 이로 인해 기뻐한다면 죄를 늘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문제가 생겨난 것을 하나님보다 먼저 크게 느낀 것이 죄이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하나님보다 우선적인 웃음의 이유로 삼은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선민은 웃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왜 웃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울면서 살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담을 안고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

다. 그러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겠다고 결심하셨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삶의 태도를 고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은 창조주의 주권 바깥에서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와 함께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웃음의 원인은 하나님이 되셔야만 합니다. 웃으면서 삶의 문제들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 때에 백성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체감하자 적군을 향해 웃으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군대보다 성가대를 앞세운 것이 이것을 의미합니다. 적군과 싸워야 하는 군대는 두 번째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채택하는 방책은 두 번째로 미뤄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돈, 건강, 가족, 직장, 승진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웃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하나님에 의해서 주관되어짐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니 나는 웃고 봐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웃음이 나올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일을 먼저 받아들였다가 그 일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웃는다면 두 번의 죄악이 저질러질 뿐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 뿐입니다. 하나님보다 문제를 크게 여긴 것이 죄악이며, 하나님보다 그 문제의 해결을 기뻐하는 것이 죄악입니다.
여호사밧 왕 때의 백성들은 성가대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느끼자 즐거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데 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지만 느껴지지 않았기에 성전에서 기도함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찬송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들이 자멸하게 되었지만 이것을 새삼스럽게 기뻐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승진을 하더라도 이로 인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한편 승진을 못하던 시절에도 이미 하나님으로 기쁨을 누립니다. 이 기쁨의 연장선상에서 승진이라는 사건을 마주할 뿐입니다. 그렇기에 마음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승진을 해서 웃는지, 승진 이전부터 하나님 때문에 웃고 있었는지가 큰 차이를 가집니다. 내가 승진 때문에 웃고 있다면 이러한 나를 번제단에서 죽여야만 합니다. 자녀가 서울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 웃음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서울대학에 들어간 것 때문에 웃고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난 웃음의 연장선상에서 자녀가 서울대학에 들어가는 사건이 벌어진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웃지 말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슬퍼하며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웃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웃으며 사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는 우리의 웃음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연인을 예로 생각해봅니다. 연인에게 친구가 있습니다. 연인은 나와 있을 때보다 그 친구와 있을 때에 더 즐거워합니다. 용납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성적 외도는 아니지만 마음이 바람을 피운다는 것은 똑같기에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도 돈만 보면 웃습니다. 일류대학만 보면 웃습니다. 승진만 보면 웃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형통만 보면 웃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곁에 두고도 바람을 피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의 헤어짐이 멸망의 예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하반부에는 셉나와 엘리야김이 언급됩니다.
이들은 궁정 안에서 요직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언급한 것은 선민을 지도할 요직에 있는 자들의 마음상태가 옳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기쁨거리들을 추구하던 예로서 이들을 지목했던 것입니다. 요직에 있는 자들 또한 이러하니 백성들이야 항차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셉나나 엘리야김 모두 사적인 이득을 마음의 기쁨으로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이 세상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먼저 더 크게 의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는 하나님만이 마음의 웃음거리가 되셔야만 합니다. 헬무트 총리가 자신이 국민들의 웃음거리가 되면 좋겠다고 하였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일한 웃음거리가 되셔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세상으로 기뻐하려는 나의 마음을 십자가에서 끊임없이 죽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웃음의 이유가 되시도록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지 않으면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 웃음의 이유가 되실 수 없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사사건건 내 마음에 파고들어서 웃음과 걱정의 이유가 되고자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끌어안으려는 마음을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싱글벙글 웃으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